

# 그리스도의 절대사랑의 망대를 실현한 70인 제자 호세아 -복음으로 여는 호세아- 호세아 11:8-9, 요한일서 4:16

정윤돈 목사님

\* **호11:8-9**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 **요일4: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행복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양하고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12가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영적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메시지를 통해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 세계복음화와 후대를 위해 생명 건 헌신할 이유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고 내게 있는 여러 문제와 인생의 방향에 대한 절대적인 언약과 미션을 붙잡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신길교회에서 열린 결혼식에 다녀왔다. 제가 처음 전도사생활을 신길교회에서 했다. 제가 교육부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였다. 그런데 청년부가 불과 몇 년 전에 150명이었는데 지금은 50명 밖에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봤다. 그 교회 회장과 부회장과 총무가 삼각관계를 이루고 갈등하다가 교회 청년회가 쫓겨나갔다고 했다. 제가 후보를 보니까 그동안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청년부가 가장 전도가 많이 되었다. 장로님 한 분이 교회 건축헌금의 절반 이상을 했다. 일년에 백 명씩 전도하신다. 백 개의 교회를 짓고 백 명의 목회자를 세우는 삶을 사신다. 중직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를 느꼈다. 후대 중에 이런 인물이 나오도록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안 되면 후대에게 그 언약을 전달해야 한다. 그 과정이 쉽지 않다. 교회 안에서고 권도교회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겪는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다. 호세아서 내용이다. 호세아 11장 8절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함께 멸망한 도성들이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하셨다. 어떻게 너희를 멸망시키겠느냐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호세아서 11장 9절의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해서 징계를 내리셨지만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신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아니라 고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죄를 범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선언하고 있다. 저희 아버님도 가끔 열 받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호적에서 지우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의 그

뜻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호세아처럼 가는 현장마다 복음의 망대와 사랑의 망대를 세워야 하겠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로 북왕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한 유일한 선지자였다. 남왕국 출신의 선지자들은 주로 북왕국까지 가서 예언하고 경고했었다. 북왕국 출신인 선지자들은 주로 남왕국으로 와서 예언했다. 그런데 북왕국 출신이면서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유일하다. 북왕국 출신 목회자가 북왕국에서 활동한 것과 같다. 당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위대한 복음의 선지자 이사야였다.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룩한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 사건을 통하여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 1. 고멜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잘못과 불신양적인 모습들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1) 이스라엘과 고멜의 모습은 음란하고 타락된 모습으로 가득했다. 그들의 얼굴과 몸에는 음란과 음행이 흐르고 있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과 화평과 온유가 보이지만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 자기만 생각하고 악하고 더럽고 이기적인 이미지다. 이걸 향이나 빛이 아니다. 어두운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많다. 현장에서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어야 한다. 호세아 2장 2절을 보겠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걸 딸이 어머니와 갈등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 말은 이미 가정과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잘못된 이미지와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게 세 가지 말씀운동과 기도운동과 전도운동이다. 이 세 가지 운동이 아니면 이 악한 것을 제할 수 없다.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 없다. 유일하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복음이고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성공자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 내가 거듭나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자리에 없으면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진다. 육적으로 잘 되도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2) 음란한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신에게 돈과 물질과 술을 공급해 주는 남자를 따라갔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과 물질을 따라갔던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고멜은 결국 본 남편인 호세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호세아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그 내용이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한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때와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삼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다고 했다. 고멜이 음행했을 때는 이미 고멜에게 자녀가 있었다는 것이다. 고멜이 그럴 때마다 호세아는 잡아왔다. 나중에 창기가 되어서 돈 주고 호세아가 사 온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한다. 감사한 것은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라고 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막으신다는 것이다. 그릇된 길로 갔는데 잘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꾸지람이 없으면 자녀를 미워함과 같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신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계속 꾸지람 들으면서 변화되면 그 현장에서 빛이 되고 응답을 받는다.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면 깨지고 돌이킬 수가 없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인턴십을 해야 한다. 고멜은 자녀가 있는 어머니였지만 떡과 기름과 술을 준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결국 고멜은 본 남편과 함께 있었던 ‘그때의 형편이 나았음이라’라고 고백하였다. 램넛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 램넛트들은 세상에서 두들겨 맞고 교회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램넛트들은 교회에서 변함없이 응답받아야 한다. 다니엘은 미리 결단했다. 뜻을 정했다.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

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천국같지만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지옥같이 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

(3)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포악한 사람들이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 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어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다. 그들의 영적상태는 완전히 사탄의 울무, 툄,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

(4) 그들은 자기를 마음대로 왕을 세웠고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호세아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바라고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는 항상 기도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우상화된다. 말과 행동과 모든 게 잘못된다. 중요한 기준은 이걸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물었느냐 하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했다면 내가 실수한 것이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불신앙적이고 악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고멜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다.

## 2. 고멜과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붙잡혀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겠다.

(1)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고멜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호세아의 사랑은 우리의 신랑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이들을 낳으매” 하나님의 역사와 뜻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다. 호세아와 같이 거룩한 복음의 선지자에게 청년과 결혼하라고 했다.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으로는 맞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획이 있다.

(2)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래에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셨다. 호세아 1장 10절을 보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저는 신길교회 청년부의 여러 가지 문제의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시키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과 윤리, 도덕이 아닌 우리의 복음을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을 믿었다.

(3) 빛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 주시고’, ‘말로 위로해주시고’, ‘믿음의 축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것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이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라고 했다. 다락방 하다보면 여러 가지 원망들과 불평들이 많다. 처음에 다락방의 할 일은 타이르는 것이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게 팀사역이다. 그래야 나중에 제자가 되어서 미션홈이 되고 전문교회로서 한 지역을 살릴 만큼이 된다. 흐름이 중요하다. 첫 시작이 중요하다. 우리의 첫 흐름의 시작은 오직 예수와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시작은 다섯 가지 성경적 전도운동을 현장에 세팅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성취된다.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

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4) 우상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는 일이 없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호세아 2장 17절을 보겠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나다. 말은 내 생각에서 나오고, 내 생각은 내 영혼에서 나온다. 내가 누구에게 붙잡혔느냐 하는 것이다.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라’라고 했다.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거둬나케 하신 것이다. 바알이라는 것은 음란과 욕심을 다 포함하고 있는 용어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바알을 제거할 것이라 약속하셨다. 우리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나와야 한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달라진다. 상처 입는 것은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진짜 제지는 고쳐쓰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머머마한 축복을 예비하셨다.

(5) 237나라, 5천 종족을 위한 선교의 명대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음란하고 실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237 살리는 제목으로 쓰실 것이다. 호세아 2장 23절을 보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공홀히 여감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공홀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라고 약속해 주셨다.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내 백성이라고 했다.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한다. 선교와 237전도를 해야 한다. 이번에 선교대회와 선교사 초청을 하게 된다. 이제 여러분에게 선교사를 한 명씩 붙여서 소통하도록 해야겠다. 여러분들에게 ‘나의 선교사’가 있어야겠다.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하고 죄악 된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한 복음과 사랑의 일천 명대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들이 적용해야 할 5력 즉,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① 첫 번째 영력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호세아와 같은 사랑의 명대를 세울 수 없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다. 조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야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자를 계속 보내실 것이다.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충만과 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이게 영력이 다.

② 두 번째 지력이다.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아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불완전한 지식으로 세운 복음의 명대와 사랑의 명대는 지진이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튀르키예 지역에 지진이 있었는데 건축법을 제대로 지킨 도시는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호세아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말씀의 지식으로 세운 믿음은 울췌부적으로 빠지게 되어있다. 요셉이 일은 철저히 잘했지만 형들을 전부 용서하고 사랑했다. 내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다 용서해라. 주어진 일은 요셉과 다니엘처럼 철저히 해라. 전문성을 준비해야겠다.

③ 세 번째 체력이다. 우리는 자신과 가정과 후대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궁극적인 절대목표는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④ 네 번째 경제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승리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⑤ 다섯 번째 인력이다. 우리들은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이 어디를 가든지 호세아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호세아와 같은 70인 제자가 되어 호세아와 같은 복음의 명대, 사랑의 명대로 세워지는 것이다.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세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천명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멜보다 더 더럽지만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없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잊지 않고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명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